

20일 Market Index			
코스피	9052.42	코스닥	966.59
	(-11.42)		(-34.34)
금리	3.784	환율	1531.00
	(+0.034)		(+3.90)

metro 경제



'반도체 독주' 증시 양극화... 새 성장동력 절실

韓 고용률 70% 진입 OECD 평균 '눈앞' 25~54세는 하위권

코스피 '1만시대' 눈앞
삼전·하이닉스 시총서 55% 차지
코스피 반도체 쏠림 'K자형' 양극화
상승종목 109개, 하락종목 791개
1분기 경제성장률 1.7% 달하는데
반도체 제외하면 0.8% 상승 불과



휘발유·경유 가격 5주 연속 하락
2009.2원, 경유는 2,004.1원을 기록했다.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당 0.7원 내린 /뉴시스

코스피가 1만선을 바라보고 있다. 코스피 급등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혁명이 낳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 훈풍을 타고 올 들어서만 세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두 회사의 실적 개선 효과만으로도 올해 코스피가 1만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코스피가 상승세가 지속 가능하려면 제2, 제3의 반도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5억 1427만 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의 거래량 비중은 지난달 4.95%에서 이번 달 6.24%(3210만주)로 더 늘었다. SK하이닉스는 0.89%에서 1.04%(535만주)로 각각 확대됐다.

두 회사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4.60%에 달한다.

상장지수펀드(ETF)도 반도체 쏠림 현상을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1~19일) ETF 수익률 1위는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31.22%)가 차지했다.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31.13%), 'ACE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29.71%), 'SOL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29.67%), 'RISE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28.25%),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27.06%)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지난달 27일 상장된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7종이 이달 ETF 수익률 상위권에 모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나아가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를 포함해 149개까지가 모두 반도체 관련 ETF였다. 'KODEX 200통코스닥150 섹터' (15위·18.18%)를 제외하면 21위까지 전부 반도체 관련 ETF였다.

그러나 반도체 쏠림과 'K자형'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증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확연히 갈리는 증시 양극화도 심화됐다. 코스피가 사상 첫 9000선에 올라선 지난 18일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 종목은 791개로, 상승 종목 109개의 7.26배에 달했다.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은 코스닥시장은 오히려 하락했다.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7%였지만, 반도체를 빼면 0.8%로 떨어진다. 증시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증시와 실물 경기의 괴리도 크다. 유가가 치솟으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했던 2022년 7월(9.2%)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도 함께 상승한다. 중동 전쟁 이후 소비자물가는 3월 2.2%, 4월 2.6%, 5월 3.1%로 매월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유튜브 채널 '삼프로티브이(TV)'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버블이라는 건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며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AI 대전환, 초혁신 기술 아이템 개발, 인력 양성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이슈까지 선진화시키겠다는 비전을 정부가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허정준 기자

우리나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정 기준으로 70%대에 진입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한국은 최근 3년 사이 이스라엘, 룩셈부르크를 제쳤다. 이어 올해 OECD 평균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15~64세(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70.0%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분기별 고용률이 70% 선을 찍은 것은 역대 처음이다. 한국은 38개 회원국 평균에 바짝 다가섰다. 평균치는 1분기 70.3%로 불과 0.3%포인트 차다. 한국 수치는 지난 수십년간 OECD 평균을 상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오는 2, 3, 4분기 고용률이 기대를 모은다.

순위 26위... 3년새 2계단 상승
네덜란드 고용률 82%, 日 80%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31위 불과
15~29세 청년 고용률 44% 그쳐

순위도 26위(37곳 중 25위)나 취합안된 아이슬란드 80%대 추정)로, 3년 사이 2계단 뛰었다. 2023년 1분기에 한국은 68.8%로 38개 회원국 중 28위였다. 이 기간 룩셈부르크(70.5%→68.7%)와 이스라엘(70.2%→69.3%)에 앞섰다.

우리나라는 2024년 4분기 69.6%에서 2025년에는 1분기 69.7%, 2분기~4분기 각각 69.9%로 수치의 상승 흐름으로 보여 왔다. 다만 네덜란드(82.2%), 일본(80.2%), 독일(77.3%), 호주(77.2%) 등에는 여전히 크게 뒤진다. 아랫돈 15~64세 비교에서 그간의 중하위권을 벗어나 중위권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창 일할 나이대인 핵심노동인구(25~54세) 비교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 1분기 한국의 이 연령대 고용률은 79.0%로, 순위가 38개국 가운데 31위였다. 룩셈부르크(85.0%)와 이스라엘(81.1%)도 이보다 위에 자리했다.

일본은 25~54세 고용률이 88.2%로 38개국 중 3위였고 OECD 평균(80.2%)도 한국보다 1%p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 15~24세(24.1%) 비교에서는 34위까지 처졌다. 밑으로는 4개국뿐이다. 국내에선 학업 등의 이유로 상당수가 취업을 미루는 데 따른 결과이지만, 29세 이하 한국 청년층의 취업난은 이미 국가데이터 통계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올해 역시 알자리 부족이 진행 중이다.

이달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8%에 그쳤다. 올해 5월까지 25개월(전년동월 대비) 연속으로 후퇴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서울 아파트값 '꿈틀'... 보유세·양도세 강화 카드 꺼내나

靑, 내달 세제 개편에 관련법 담을 듯
반도체 호황, 부동산시장 상승 우려

청와대가 주택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시사하면서, 오는 7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 역시 이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나중에 썬야 하는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정부가 이 같은 정책 판단을 한 것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는 점, 그리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하반기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기업 영업이익 증대가 가시화되고, 일부 반도체 기업 등에서 거론됐던 역대급 성과급 지급도 이뤄진다. 이럴 경우 성과급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에, 정부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도 주택 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셈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정책실장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승률(3.8%)과 국내총소득(GDI) 상승률(13.2%)이 9.4%포인트(p) 격차를 보인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민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급심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라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실장은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도 역부족일 수 있다. 이번에는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지난 8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집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서구 선진국이 하는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밝혔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

그러나 한창 일할 나이대인 핵심노동인구(25~54세) 비교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 1분기 한국의 이 연령대 고용률은 79.0%로, 순위가 38개국 가운데 31위였다. 룩셈부르크(85.0%)와 이스라엘(81.1%)도 이보다 위에 자리했다.

일본은 25~54세 고용률이 88.2%로 38개국 중 3위였고 OECD 평균(80.2%)도 한국보다 1%p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 15~24세(24.1%) 비교에서는 34위까지 처졌다. 밑으로는 4개국뿐이다. 국내에선 학업 등의 이유로 상당수가 취업을 미루는 데 따른 결과이지만, 29세 이하 한국 청년층의 취업난은 이미 국가데이터 통계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올해 역시 알자리 부족이 진행 중이다.

이달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8%에 그쳤다. 올해 5월까지 25개월(전년동월 대비) 연속으로 후퇴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우원식 "당의 분열과 반목 지켜보기 힘들어... 전당대회 나갈 생각 없다" /사진 뉴시스
- ▲조국혁신당 "靑 민정수석 한찬식 임명 우려... 반개혁적 전력"

- ▲송영길 "전당대회 출마 여부, 호남 민심 볼 것... 광주서 세 후보 중 내가 1등"
- ▲70대 운전 차량, 행인 2명 치고 오토바이 3대 광...1명 사망

- ▲검찰, '브로커 비용 광고비 위장' 27억 포탈 혐의 안과 의사 기소
- ▲직장인 87% "플랫폼기업 책임 회피 막는 기준 마련해야"